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차 경 호[†] 홍 기 원 김 명 소 한 영 석

호서대학교

중앙공무원교육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남녀가 생각하는 자존감의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평가하는 척도를 제작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과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 및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89)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모두 두 차례의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FGI형식으로 이루어진 1차 조사에서는 성인남녀 61명을 대상으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을 조사하여 중복된 응답을 제외하고 148개의 특성들이 도출되었고, 각 특성들의 유사성에 따라 1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전국 성인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148개의 자존감 척도 예비 문항들과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와 Ryff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문항들을 함께 실시하여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조사 2에서의 응답결과에 대한 분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먼저 877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 선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후 최종 11개요인, 7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존감 척도가 마련되었다. 나머지 611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된 자존감 척도와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 및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이용하여 구성개념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자존감, 자존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

[†] 교신저자 : 차경호,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330-713) 충남 천안시 안서동 268
E-mail : chakh@office.hoseo.ac.kr

자존감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또한 자존감은 인간행동의 동기적 요소로 작용하여 개인의 행동의 이해와 더불어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에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진다. 즉 정서적으로 성숙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며, 일반적으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자존감 또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자존감은 인간의 동기, 능력, 성취 등 다른 구성개념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어느 한 분야의 연구대상으로 국한되기 보다는 사회학습, 사회인지, 발달심리, 자기지각 등의 여러 분야와 관련성을 맺고 있기에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간주된다(Harter, 1983, 1986). 또한 자존감은 과거 아동 또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학교에서의 수행, 정신건강, 성공적인 적응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자존감에 대한 평가와 이에 관한 개발의 문제는 심리학자, 교육학자, 아동학자 및 임상학자의 주요한 관심에 대상이었다(Rosenberg, 1979).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자존감 자체를 측정하는 자존감 차원에 대한 연구와 자존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밝히려는 연구, 그리고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 결과요인으로서 행동적, 심리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와 자존감에 대한 발달적 변화와 성별 연령별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로 나뉘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도 자존감과 성취결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축적되면서, 청소년의 적응에 필수적으로 지목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곽금주, 김근영, 1996, 1997).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존감이 학업성취와 직업성취 같은 교육적 결과와 이를 매개하는 학습동기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

혀졌다(Bandura, 1969; Finehout, 1983; Johnson, 1981; Knoff, 1983; Martin, 1985; Olivarez, 1985; Smith, 1985; Tucker, 1985).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자존감을 갖는 사람들은 포부수준이 높고(Baumeister & Tice, 1982), 자신을 높게 평가하며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점을 피하려하지 않고 인정하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Ellicott, 1984). 또한 낮은 자존감은 폭력행동의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Anderson, 1994). 예를 들어 낮은 자존감은 부인폭력(Gondolf, 1985), 형제폭력(Wiehe, 1990), 무기를 소지한 강도(MacDonald, 1975), 테러리스트(Long, 1990), 살인(Kirschner, 1992) 등의 범죄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직무수행과 직무만족에서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을 통합분석을 한 Judge와 Bono (2001)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직무에 도전해서 자신이 숙달할 기회와 이익을 얻을 기회로 인식하는 반면에,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기회를 잡을 가치가 없거나 실패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무만족과의 관계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상황을 선택하여 더 높은 직무만족 수준을 이끌어 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해서 살펴보면, 자존감을 다면·위계적 구조로 가정한 양계민, 정진경(1993)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학문적 자기의 한 영역인 신체적 매력 지각 정도가 전반적 자존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고, 성별에 따라서도 남성 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모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에 근거해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

(Cooley, 1902; Mead, 1925; 홍성열, 1998 재인용)들은 사회화의 대행자로서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을 다루었다. 부모의 양육과 관련해서 강영자(2000)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부모로부터의 애착이나 지지경험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취 관련 행동에 크게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화 대행자의 역할보다는 아동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자기사회화 관점에서는 사회적 비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아동 자신의 판단과 평가가 자존감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Diane & Ruble, 1986; 김문혜, 강문희, 1999 재인용). 사회 비교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비교의 세 가지 비교 표적, 즉 상향, 하향 및 유사 비교 중에서 자기 고양을 위해 하향비교가 시도되고, 자기평가나 자기향상의 동기는 상향비교를 유도하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유사비교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즉 상향비교의 결과와 하향비교의 결과가 자존감의 선행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된 자존감의 선행요인으로 역량 지각, 사회적 지지, 신체외모 등의 선행요인을 종합해서 이들 요인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김문혜와 강문희(1999)는 이들 요인 모두 자존감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고, 아동의 학년에 상이한 인과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아동들의 자존감에 가장 강력한 선행요인으로 신체외모에 대한 지각임을 밝혔다.

자존감에 대한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로서 국외에서는 Wigfield(1991)는 자신이 개발한 수학과 영어, 운동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능력 척도와 Harter(1983)의 전반적 자아가치 척도를

이용하여 성별차이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능력에서는 성별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반적 자아, 신체능력, 수학능력은 남아가 여아 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영어는 여아가 남아의 경우보다 높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이주리(1994)는 Harter(1983)의 역량지각척도를 이용하여 아동 및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신체적 역량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나, 인지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은 성별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진화와 전경숙(1995) 역시 Harter(1983)의 역량지각척도를 이용하여 아동 및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신체적 역량 및 운동적 역량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나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및 전반적 자아는 성별과 무관함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김기정과 이건만(199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의 경우 학업적 자아만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며 비학업적 자아 영역에서는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존감에 대한 연구들이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며,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자존감에 대한 연구분야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왔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존감에 관한 연구들을 비평한 문헌(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Wylie, 1979)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자기개념 또는 자존감에 대해 개념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구성개념을 측정, 평가하는 방법이나 도구에도 타당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이 지금까지의 자존감 또는 자아개념과 관련된 연구에서의 일관성 없는 결과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자존감의 정의 또는 차원에 관한 연구로, 먼저 자존감의 정의적 측면에서 일부 학자들은 자기-개념과 자존감을 구분하기도 한다. Mussen, Conger, Kagan과 Huston(1984)은 자아개념은 판단(judgmental)개념이 아니라 일련의 기술적인(descriptive) 개념으로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에, 자존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rown과 Alexander(1991)는 그러한 구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기술하는 것(describing)”과 “평가하는 것(valuing)”의 두 개념들이 가설적 구성개념들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들 두 개념들이 분리되어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나는 똥똥하다”, “나는 모임을 즐긴다”, “나는 공부를 잘 한다”와 같은 말들을 그러한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자기를 기술하기 힘들므로 “자기개념”과 “자존감”은 상호 교환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연구자들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기술하는 것보다는 더 정서적인 행위이므로 자기개념을 자존감 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자아개념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 측정이 가능한 자존감을 취급하였으므로(Wylie, 1979; Berk, 1991) 심리학에서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는 자아에 대한 평가적 방향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존감을 평가적 측면에서 정의한 학자들 중 Coopersmith(1967)는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 또는 가치판단’이라고 하였으며, Gordon(1969)은 ‘자신의 잠재적 행동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개개인의 평가지향’이라고 정의 내렸다. Rosenberg(1979)는 ‘자신에 관한 부정

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존감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 내렸다. Newman과 Newman(1983; 박아청, 1983 재인용)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라고, Mussen 등(1984)은 ‘자신의 지각된 성격 또는 특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며 자신의 속성이나 국면에 대한 자기 평가의 총체’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정의들은 한결같이 평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자존감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이 하나의 총체적 평가를 강조했지만, 취학전 아동조차도 자아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느낌을 구별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Harter, 1983, 1990) 자아존중감의 선행요인, 영역, 차원, 등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졌다. 또한 요인분석에 의해 자존감이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Marsh & Gouvernet, 1989). 즉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단일차원이 아닌 다면·위계적인 구조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송인섭, 1994; Harter, 1986; Marsh, 1993). Fleming과 Courtesy(1984)에 따르면, 자존감은 일반적 자아를 위에 그리고 밑에 학문적 자아와 비학문적 자아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학문적 자아는 영어, 역사, 수학, 그리고 과학과 같은 교과목의 형태로 나뉘지며, 비학문적 자아는 사회적 자아, 정서적 자아, 신체적 자아로 구분하였다.

또한 Harter(1986)의 다면·위계적 구조로서의 자존감에서는 영역별 자기평가인 역량지각이 자존감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존감과 영역별 역량지각과의 관계는 개인이 영역에 부여한 중요도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역별 역량지각과 아동이 영역에 부여하는 중요도 평정이 결합될 때 자존

감을 보다 잘 예언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Harter는 아동의 자아평가를 위한 개별적 중요성 가중치 모델을 제시하였다. Harter는 이 모델에서 자아는 인지, 사회, 신체의 특정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로 구성됨을 밝히고, 추후 연구에서 운동영역과 행동영역을 추가하여 6개 영역으로 구분된 역량지각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Harter(1986)의 아동용 자아지각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아동의 자아지각 척도를 개발한 이은혜, 신숙재, 및 송영주(1992)는 아동의 자아개념이 전반적 자아가치, 신체적 능력, 인지 능력성, 사회적 수용, 행동, 외모로 다면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희화와 김경연(1993)의 자아존중감의 영역을 인지적 능력자아, 또래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부정적 자아, 신체적 능력 자아의 6개로 구분되는 다면적인 구조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존감이 서로 구분되는 영역으로 구성된 다면적 개념으로 간주할 때 생겨나는 문제점은 아동기와 청년기 또는 성인기의 자존감 영역이 동일할가라는 점이다. 비록 청소년이하의 연령대에서 자존감에 대한 많은 관심은 청소년기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Erikson (1959; 김희화, 김경연, 1999 재인용)에 의하면 청년기는 정체감 위기 시기이므로 자아상의 혼란을 가져와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Rosenberg(1979)는 청소년 중에서도 청년 초기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고 자아개념이 혼동스러운 시기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아동과 청년기에 자아개념에 따른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의 경우에도 자존감을 통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간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자존감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청소년용 자존감의 척도를 가지고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송인섭(1984)이 제시한 학문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인 학습 자아개념이나 김희화 등(1993)이 제시한 영역 중 교사관련 자아는 성인의 자아영역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의문에 가능한 답은 Montemayor와 Eisen(1977; 김희화, 김경연 1993 재인용)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변화를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아동기에는 주로 소유, 신체상, 신체적 자아, 자원 등에 관심을 보이거나 청년기로 갈수록 직업적 역할, 관념적 신념참조, 자아 결정감, 통합감, 대인관계 양식, 심리적 양식 등에 관심이 증가되는 자아개념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Montemayor & Eisen, 1977; 김희화, 김경연 1993 재인용). 이에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자존감의 구성개념과 그 차원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존감의 다차원적 개념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성인 대상의 자존감 연구 기초로써 자존감의 차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의 다차원적 개념을 밝힌 국내연구로서 홍기원, 김명소, 이종택 및 한영석(2004)은 자존감을 고양과 상실의 2차원적 구조로 정의하고, 자존감 고양의 요인은 '칭찬-인정', '인기', '봉사', '성취'의 4개 차원으로, 자존감 상실 차원은 '무시-불인정', '상대적 박탈'으로 차원으로 구분

하고, 자존감의 고양차원이 자존감의 상실차원보다 다양한 하위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제안한 자존감의 2차원적 구조는 경험적 자료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차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배우자나 부모 등의 가족과 관련된 차원이나 경제력과 같은 차원이 생략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일관되게 도출되는 신체적 매력 등과 같은 중요 차원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개발된 자존감 척도에 대한 타당도 분석이 빠져 있어서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자존감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문항화하여 자존감의 척도를 개발하고, 유사 척도인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와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의 관련성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1차 조사: 자존감의 구성요소 탐색

연구목적

자존감의 구성 요소를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 중 하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국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상황과 낮추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한국인의 자존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이들이 생각하는 자존감

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밝혀야 한다. 즉, 한국 성인들의 자존감과 관련된 상황 및 요소들을 밝혀 문항화 하기 위해 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라고 함)을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GI에서 자존감의 요소를 밝히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1) “무엇이 당신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십니까?” (2) “언제 자존감이 상하십니까?” (3) “자긍심을 느끼는 상황은 언제입니까?”이었다.

조사대상자

1차 조사는 FGI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학생 집단과 20-34세, 35-49세, 50-64세의 남, 여 각각 8-9명으로 구성된 7개 표본집단, 총 61명을 선정하였고 참가자들에게는 1인당 소정의 참가비가 지불되었다.

연구결과

자존감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2인 1조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자존감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자유롭게 보고하였다. FGI 참가자들로부터 도출된 자존감 특성들 중에서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종합한 결과, 14개영역에서 148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14개영역은 ① 인품에 대한 인정, ② 대인관계에 의한 인정, ③ 배우자에 의한 불인정, ④ 부모에 의한 인정, ⑤ 자부심(타인에 의한 인정), ⑥ 자신의 능력/성취, ⑦ 자신의

표 1. 응답자 인구학적 특징 단위: 명 (%)

성별	남	727	(48.4)	거주지역	서울	720	(47.9)
	여	775	(51.6)		인천	148	(9.8)
연령	20-29세	336	(22.4)	부산	222	(14.8)	
	30-39세	329	(21.9)	광주	76	(5.1)	
	40-49세	329	(21.9)	대전	80	(5.3)	
	60-64세	172	(11.4)	춘천	30	(2.0)	
결혼상태	미혼	348	(23.2)	직업	학생	185	(12.3)
	기혼, 동거	1106	(73.6)	자영업	322	(21.4)	
	이혼(별거)	10	(.7)	영업직	98	(6.5)	
	사별	39	(2.6)	사무직	267	(17.7)	
자녀수	없음	365	(24.3)	생산직	72	(4.8)	
	1명	178	(11.8)	전문(관리)직	52	(3.4)	
	2명	683	(45.4)	무직	40	(2.7)	
	3명	186	(12.4)	시간제	59	(3.9)	
	4명이상	74	(4.9)	기타	50	(3.3)	
학력	고졸이하	742	(49.4)	전체	1503		
	전문대졸	176	(11.7)				
	대졸	555	(36.9)				
	대학원이상	29	(1.9)				

노력/성취, ⑧ 인기, ⑨ 자녀의 성취, ⑩ 사회적 부당대우(차별대우), ⑪ 국가에 대한 자부심, ⑫ 사회봉사, ⑬ 매력(신체/성적/건강), ⑭ 경제력이었다.

2차 조사: 자존감 척도 개발

조사대상자

2차 조사는 전국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1차 조사 결과 개발된 자존감 척도와

자존감[®](Rosenberg, 1979) 및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89;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를 함께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4세 성인 1503명을 선정하여 자존감의 특성 문항들과

* Rosenberg(1979)의 자존감척도와 본 연구에 개발된 한국판 자존감 척도의 구분을 위해 본 논문의 아래부터는 Rosenberg의 자존감척도에는 [®]을 붙여서 표기한다.

자긍심 및 6개 심리적 안녕감 요인(자율성, 자기 수용감,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통제력, 자기 성장감, 삶의 목표)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참가비가 지불되었다.

분석방법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빈도 분석을 통해서 무응답 또는 '해당없음'에 응당한 비율이 25%(376명/1503명) 이상인 문항은 전체 응답자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빈도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 중 25%이상 무응답 또는 '해당없음'의 결과를 보인 문항은 전체 148문항 중에서 39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은 109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존감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자료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877명(남성 431(48.65%)명, 여성 455명(51.35%))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존감의 109문항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611명(남성 295명(48.52%), 여성 313명(51.48%))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교차타당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principal axis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상관자승치(SMC)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인구조를 회전하였으며 이 때 직교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들과

해당 문항들에 대한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를 살펴 보았다. 이어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자존감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선정에 사용되지 않은 다른 표집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성개념의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은 SAS windows용 8.01를 이용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windows용 8.03판을 이용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 졌다. 1 단계에서 109문항 전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직각회전(varimax)을 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요인분석 결과에서 너무 많은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 포함되어 요인의 해석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들이 발생하여, 즉, 1차 조사에서 14개 영역으로 선정한 문항들이 변별되어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및 세 번째 요인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세 개의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83문항 76%)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세 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은 첫 단계에서 실시한 방법과 같이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method)으로 요인을 추출한 후 varimax 회전을 시켰다.

109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한 시초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처음에 스크리 검사와 누적분산 퍼센트(75% 이상),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요인의 수요는 5개-9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수효를 5-9개로 모두 지정해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 당 3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되고 사전에 가정된(조사 1에서) 14개 영역에 부합됨과 동시에 설명변량이 적절하며 해석이 가능한 요인의 수는 7개였다. 요인 수 7의 고유치 및 누적설명량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7개의 요인을 지정하였고, 요인추출 후, 요인계수가 .30보다 낮은 31개의 문항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시초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가 큰 요인 1, 요인 2 및 요인 3로 묶인 문항들을 내용적으로 살펴본 결과, 조사 1에서 가정된 영역들이 함께 묶여지는 결과는 보였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에 묶인 문항들만을 가지고 다시한번 개별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초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나온 요인 1의 25문항, 요인 2의 15문항, 및 요인 3의 14문항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각각의 고유치가 큰 요인 1, 요인 2, 및 요인 3은 조사 1에서 가정한 영역구조와 부합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1은 1차 조사 결과 가정했던 '경제력', '국가자부심', '부모에 의한 인정', '자부심(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인품에 대한 인정', '자신의 노력/성취' 5개가 함께 묶여 나타났다. 즉 경제적 여유 및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대한 부모님으로부터의 인정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묶여 있어서, 현재까지의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관련된 제반 요인 및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2는 14개 영역에서 사회적 부당대우(차별대우), 배우자에

의한 불인정 요인이 한 요인으로 묶였다. 이는 성, 지역, 연령 등에서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가족 내에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의 불인정을 경험에 기반하므로 자존감 상실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3은 14개 영역에서 인기, 대인관계에 의한 인정, 매력(신체/성적/건강) 3개 요인이 한 요인으로 나타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지각하는 긍정적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7개 요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2차 조사에서 내용분석 결과 도출된 14개 영역들과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으며 단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14개영역 중 10개 요인들이 위 3개 요인들에서 함께 묶여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2단계 요인분석은 단일 요인으로 도출된 4개 요인들을 제외하고 이들 3개의 요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각 요인분석의 기초요인 해에서 설명변량 비율과 최종해(final solution)의 해석가능성을 참고로 했을 때 2단계 요인분석 과정에서 추출된 총 요인 수는 11개였다(표 2 참조).

제 1 요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한 인정, 만족감 및 자부심 등을 반영하므로,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으로 명명하였다. 제 2 요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반영하므로 '부모에 의한 인정'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3 요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을 나타내므로 '국가자부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4 요인은 사회로부터 현재의 자신의 성, 학력, 지위, 연령 등에서 부당대우를 받지 않은 정도를 반영하므로 '사회로부터 인정'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5 요인은 가족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인 배우자

표 2. 자존감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요인계수 행렬표) 및 신뢰도계수

문항	요인계수	b^2
요인 1 :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alpha=.875$)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생의 좋은 본보기로 생각한다	.611	.452
여러 곳에서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서로 오라고 한다	.580	.362
다른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562	.424
주위 사람들은 나의 성격을 부러워한다	.547	.370
내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537	.354
주위 사람들은 나의 성품과 인격을 존경한다	.537	.367
내가 이 세상에서 매우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28	.366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14	.368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편이다.	.489	.316
직장 또는 가정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489	.333
나의 동료나 친구, 친척들은 나를 필요로 할 때가 많다	.488	.300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고 있다	.462	.267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나를 신뢰한다	.391	.315
주위에서 우리 집안을 부러워한다	.330	.328
요인 2 : 부모에 의한 인정($\alpha=.719$)		
나의 부모님은 나를 믿고 인정해 주신다.	.558	.391
평소에 부모님과 가깝게 지낸다	.521	.350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46	.313
나의 부모님은 남들 앞에서 나의 자랑을 많이 하신다	.415	.306
나는 부모님께 효자 혹은 효녀라는 소리를 듣는다	.405	.315
요인 3 : 국가자부심($\alpha=.647$)		
우리나라(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36	.368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482	.270
우리나라 제품 중 세계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430	.220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05	.233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398	.185
스포츠팀이 외국팀을 이길때 내가 이긴 듯이 기쁘다	.360	.206

표 2. 계속

문항	요인계수	b^2
요인 4 : 사회로부터 인정($\alpha=.850$)		
나의 고향으로 인해 차별을 많이 받은 적이 있다(R)	.702	.554
나의 출신학교로 인해 피해 본 경험이 있다(R)	.640	.492
출신지역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R)	.591	.378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학연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R)	.570	.395
직장사회에서 학력이 낮다고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R)	.557	.398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묵살 당한 경험이 있다(R)	.554	.425
어린 후배나 부하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R)	.513	.466
이성(異性) 동료에 비해 승진을 늦게 한 경험이 있다(R)	.476	.239
잘못의 책임을 나 혼자 뒤집어쓴 경우가 종종 있다(R)	.385	.245
요인 5 : 배우자에 의한 인정($\alpha=.829$)		
나의 배우자(또는 애인)가 나를 무시할 때가 많다(R)	.677	.507
나의 배우자는 나의 능력을 낮게 본다(R)	.630	.449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다(R)	.615	.440
배우자는 우리 집안을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다(R)	.605	.445
나의 배우자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고 간섭한다(R)	.593	.410
배우자는 싸우다가 나의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R)	.588	.396
요인 6 : 타인으로부터 인기($\alpha=.777$)		
오락이나 여흥 시간에 인기가 있다	.711	.532
나는 친구들과보다 가무(노래, 춤 등)에 뛰어나다	.678	.497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재미가 있다고 한다	.538	.358
남에게 보여줄(자랑할) 장기가 많다.	.529	.331
미팅을 하면 인기가 매우 좋은 편이다	.413	.339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359	.246
남들로부터 외모가 멋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642	.492
남들로부터 옷맵시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는다	.562	.407
요인 7 : 신체적 매력-외모($\alpha=.772$)		
젊게 산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524	.306
이성에게 내보이고 싶을 만큼 당당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446	.311
나는 성적 매력이 있다	.444	.388
나는 남들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404	.169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도 나에게 호감을 갖는다	.395	.178
나는 웃음이 매력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384	.286

표 2. 계속

문항	요인계수	b^2
요인 8 : 자녀에 대한 만족($\alpha=.777$)		
나의 자녀들은 나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586	.445
자녀들은 나를 괜찮은 어른으로 존경한다	.579	.460
나의 자녀는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560	.405
자녀들은 내가 기대한 대로 잘 자라고 있다	.536	.353
나의 자녀들이 나를 많이 닮아서 흐뭇하다	.498	.324
나의 자녀는 외모가 뛰어나다	.438	.300
나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414	.251
자녀가 좋은 집안의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다	.278	.163
요인 9 : 자신의 성취($\alpha=.744$)		
학교나 회사에서 상을 여러 번 받았다	.565	.455
학창시절 내가 매우 우수한 학생이(였)다는것을 남들도 인정한다	.553	.433
각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합격하는 편이(었다)	.458	.389
외국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392	.321
직장, 학교나의 지위는 순조롭게 올라간(갔다)	.323	.296
요인 10 : 경제력($\alpha=.755$)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 줄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R)	.650	.465
부조나 축하금을 낼 때 많이 낼 형편이 안 된다(R)	.637	.450
가족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줄만한 경제력이 있다(R)	.499	.475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때 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다(R)	.498	.324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턱낼만한 여유가 없다(R)	.486	.322
나는 다른 형제들 보다 못사는 편이다(R)	.461	.349
나의(혹은 내 배우자의) 연봉은 동창들에 비해 낮다(R)	.326	.276
요인 11 : 사회봉사($\alpha=.802$)		
사회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여 남을 돕는다	.509	.562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421	.487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398	.436
불쌍한 사람을 기꺼이 돕는다.	.291	.406

로부터의 인정정도를 반영하므로 ‘배우자에 의한 인정’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6 요인은 타인으로부터의 인기, 인정 등을 반영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인기’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7 요인은 자신 스스로가 지각하는 자신의 매력 및 외모에 대한 만족 등을 나타내므로 ‘신체적 매력-외모’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8 요인은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도를 반영하므로 ‘자녀에 대한 만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9 요인은 지나온 삶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성취 정도를 나타내므로 ‘자신의 성취’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10 요인은 삶의 살아가는데 있어서 금전적 여유와 경쟁력이 있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서 ‘경제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11 요인은 주위의 불쌍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봉사를 나타내므로 ‘사회봉사’로 명명하였다.

11개 요인별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결과도 표 2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요인에서 내적일치도 계수가 .647-.875의 양호한 범위를 보이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실증적 결과인 위 11개 요인들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내용 중심의 질적 분석 결과 도출된 14개 요인들과 대부분 유사하다. 단지 14개 요인구조에서의 인품에 대한 인정과, 타인에 의한 인정 및 자신의 능력/성취 요인의 일부 문항이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요인으로 포함되었고, 대인관계에 의한 인정요인이 매력-외모와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요인으로 나뉘어 14개에서 11개 요인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구성개념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응답자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611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산 방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78문항으로 구성된 공변량 행렬(부록 3 참고)을 이용하였다.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전반적인 합치도지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합치도지수는 모형의 부합도로는 일반합치도(*GFI*), 조정합치도(*AGFI*), 비표준합치도(*NNFI*), 표준합치도(*NFI*), 개략화 오차평균(*RMSEA*), 비교합치도(*CFI*)가 함께 사용되었다. 표 4에 제시된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를 검토해 볼 때, 일반합치도(*GFI*)와 조정합치도(*AGFI*)를 제외한 모든 부합지수가 좋은 합치도지수의 기준인 .90이상이었으며, 개략화 오차평균값은 Browne와 Cudeck(1983)이 제안한 좋은 적합도 기준인 .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좋은 합치도지수를 보였다.

이와 함께 표 3의 요인계수 행렬표에 제시된 모든 계수의 고정지수(*T-value*)들은 2.0이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간 상관행렬을 살펴본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시된 상관 행렬표와 유사한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요인들의 요인간 상관행렬은 부록 2에 제시되었다.

요인간 상관 및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모형 확인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계수와 부합지수 등이 거의 유사하게 나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11요인 요인계수 행렬표)

문 항	λ -X	SMC
요인 1 :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생의 좋은 본보기로 생각한다	0.93	0.40
여러 곳에서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서로 오라고 한다	0.72	0.27
다른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0.66	0.32
주위 사람들은 나의 성격을 부러워한다	0.75	0.28
내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0.77	0.29
주위 사람들은 나의 성품과 인격을 존경한다	0.64	0.28
내가 이 세상에서 매우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84	0.36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01	0.44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편이다.	0.74	0.34
직장 또는 가정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0.58	0.19
나의 동료나 친구, 친척들은 나를 필요로 할 때가 많다	0.69	0.28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고 있다	0.65	0.21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나를 신뢰한다	0.69	0.31
주위에서 우리 집안을 부러워한다	0.74	0.30
요인 2 : 부모에 의한 인정		
나의 부모님은 나를 믿고 인정해 주신다.	0.59	0.33
평소에 부모님과 가깝게 지낸다	0.67	0.34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0.73	0.39
나의 부모님은 남들 앞에서 나의 자랑을 많이 하신다	0.62	0.30
나는 부모님께 효자 혹은 효녀라는 소리를 듣는다	0.83	0.45
요인 3 : 국가자부심		
우리나라(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0.70	0.30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0.40	0.07
우리나라 제품 중 세계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0.49	0.16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0.61	0.21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0.63	0.21
스포츠팀이 외국팀을 이길때 내가 이긴 듯이 기쁘다	0.74	0.31

표 3. 계속

문 항	λ -X	SMC
요인 4 : 사회로부터 인정		
나의 고향으로 인해 차별을 많이 받은 적이 있다(R)	1.03	0.44
나의 출신학교로 인해 피해 본 경험이 있다(R)	1.13	0.44
출신지역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R)	0.97	0.35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학연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R)	0.92	0.38
직장사회에서 학력이 낮다고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R)	0.87	0.35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묵살 당한 경험이 있다(R)	0.85	0.35
어린 후배나 부하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R)	0.81	0.33
이성(異性) 동료에 비해 승진을 늦게 한 경험이 있다(R)	0.52	0.14
잘못의 책임을 나 혼자 뒤집어쓴 경우가 종종 있다(R)	0.80	0.27
요인 5 : 배우자에 의한 인정		
나의 배우자(또는 애인)가 나를 무시할 때가 많다(R)	0.84	0.48
나의 배우자는 나의 능력을 낮게 본다(R)	0.77	0.44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다(R)	0.77	0.39
배우자는 우리 집안을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다(R)	0.77	0.43
나의 배우자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고 간섭한다(R)	0.81	0.43
배우자는 싸우다가 나의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R)	0.81	0.46
요인 6 : 타인으로부터 인기		
오락이나 여흥 시간에 인기가 있다	1.22	0.45
나는 친구들과보다 가무(노래, 춤 등)에 뛰어나다	1.03	0.30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재미가 있다고 한다	1.06	0.40
남에게 보여줄(자랑할) 장기가 많다.	0.82	0.24
미팅을 하면 인기가 매우 좋은 편이다	1.09	0.45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0.87	0.23
요인 7 : 신체적 매력-외모		
남들로부터 외모가 멋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0.86	0.32
남들로부터 옷맵시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는다	0.87	0.33
젊게 산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0.64	0.20
이성에게 내보이고 싶을 만큼 당당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0.82	0.29
나는 성적 매력이 있다	0.78	0.26
나는 남들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0.58	0.13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도 나에게 호감을 갖는다	0.63	0.26
나는 웃음이 매력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0.83	0.27

표 3. 계속

문 항	λ-X	SMC
요인 8 : 자녀에 대한 만족		
나의 자녀들은 나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1.13	0.45
자녀들은 나를 괜찮은 어른으로 존경한다	0.92	0.33
나의 자녀는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0.93	0.27
자녀들은 내가 기대한 대로 잘 자라고 있다	0.95	0.26
나의 자녀들이 나를 많이 닮아서 흐뭇하다	1.21	0.36
나의 자녀는 외모가 뛰어나다	0.78	0.21
나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0.57	0.15
자녀가 좋은 집안의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다	0.50	0.11
요인 9 : 자신의 성취		
학교나 회사에서 상을 여러 번 받았다	1.31	0.42
학창시절 내가 매우 우수한 학생이(였)다는것을 남들도 인정한다	1.34	0.50
각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합격하는 편이(였다)	1.38	0.48
외국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1.16	0.27
직장, 학교나의 지위는 순조롭게 올라간(갔다)	0.80	0.20
요인 10 : 경제력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 줄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R)	1.09	0.43
부조나 축하금을 낼 때 많이 낼 형편이 안 된다(R)	0.97	0.37
가족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줄만한 경제력이 있다	0.61	0.15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때 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다(R)	0.80	0.28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턱낼만한 여유가 없다(R)	1.09	0.42
나는 다른 형제들 보다 못사는 편이다(R)	0.89	0.33
나의(혹은 내 배우자의) 연봉은 동창들에 비해 낮다(R)	0.78	0.28
요인 11 : 사회봉사		
사회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여 남을 돕는다	1.51	0.59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1.36	0.61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1.34	0.47
불쌍한 사람을 기꺼이 돕는다.	0.83	0.28

표 4. 11요인 모형의 합치도지수

	NFI	NNFI	GFI	AGFI	RMSEA	CFI
11요인모형	.91	.94	.79	.77	.046	.95

표 5.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 평균변별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수	α	평균변별도	평균	표준편차
자존감®	9	.84	.55	4.06	.65
자율성	12	.63	.27	3.91	.41
환경 지배력	5	.68	.43	4.08	.56
개인적 성장	6	.62	.36	3.88	.56
삶의 목적	8	.75	.44	3.87	.58
긍정적 대인관계	13	.80	.43	4.05	.51
자아수용	14	.85	.49	3.77	.54

타났기 때문에 이하의 분석에는 모두 1503명의 전체 자료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78문항이 사용되었다.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아닌 좋은 삶 혹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측정하는 대표적 도구인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존감 척도의 변별 타당도 분석을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척도들 간의 상관 분석에 앞서 자존감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자존감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모든 구성요인이 .60이상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평균 변별도에서도 자율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30 이상의 양호한 변별도 지수를 보였다.

표 6은 성인용 자존감 11개 요인과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 및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하위구성개념과의 상관행렬표이다. 전체적으로 -.30에서 .84의 다양한 상관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요인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먼저 성인용 자존감 11개 요인의 상관을 보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요인들은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과 ‘부모에 의한 인정’ 및 ‘신체적 매력-외모’와 ‘사회로부터 인정’와 ‘배우자에 의한 인정’요인과 마지막으로 ‘신체적 매력-외모’요인과 ‘타인으로부터 인기’요인들이 .6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 스스로가 매력적이라고 지각하고,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부당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일 수록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과 ‘국가자부심’, ‘타인으로부터 인기’, ‘자녀에 대한 만족’, ‘자신의 성취’, ‘사회봉사’ 요인이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타인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자녀, 타인,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존감 척도와 자존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

요 인	자 존 감 ®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									
		W1	W2	W3	W4	W5	W6	WT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자율성	W1	.45																			
환경지배력	W2	.30	.47																		
개인적성장	W3	.30	.35	.36																	
삶의목적	W4	.39	.51	.51	.41																
긍정적대인관계	W5	.36	.47	.50	.39	.53															
자아수용	W6	.39	.43	.60	.38	.60	.51														
심리적 안녕감 전체	WT	.48	.69	.77	.66	.80	.75	.79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F1	.34	.38	.62	.34	.43	.45	.66	.65												
부모로부터의 인정	F2	.29	.24	.45	.23	.33	.37	.47	.47	.63											
국가자부심	F3	.10	.15	.37	.17	.20	.21	.33	.32	.49	.42										
사회로부터 인정	F4	.22	.37	.21	.21	.34	.52	.13	.39	.01	.08	.01									
배우자로부터의인정	F5	.30	.35	.27	.21	.41	.51	.28	.45	.12	.14	.02	.60								
타인으로부터 인기	F6	.16	.15	.25	.19	.13	.16	.33	.27	.55	.33	.27	-.26	-.10							
신체적 매력-외모	F7	.20	.22	.37	.25	.21	.18	.42	.37	.62	.40	.35	-.17	-.02	.63						
자녀에 대한 만족	F8	.22	.24	.38	.23	.30	.25	.38	.40	.56	.44	.39	.03	.15	.29	.39					
자신의 성취	F9	.23	.18	.31	.23	.25	.10	.44	.34	.57	.43	.29	-.21	-.03	.46	.50	.39				
경제력	F10	.24	.28	.29	.12	.35	.38	.44	.42	.28	.21	.05	.29	.37	.11	.14	.20	.19			
사회봉사	F11	.14	.03	.26	.09	.10	.03	.34	.20	.50	.38	.35	-.30	-.13	.39	.43	.28	.48	.07		
자존감 전체	FT	.39	.41	.60	.36	.49	.50	.68	.68	.84	.71	.56	.17	.34	.59	.68	.62	.66	.48	.57	

유의도 수준은 상관계수 .109를 기준으로 $p < .001$ 임.

성인용 자존감 요인들과 자존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인용 자존감 척도 전체와 자존감® 척도와의 전체 상관은 .39로 유의미하였고,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자존감 요인들 중 자존감®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인 하위요인은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부모에 의한 인정’ 및 ‘경제력’ 요인 순으로 .24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다른 Rosenberg의 자존감척도와 자아의 다

면적인 부분을 평가한 성인용 자존감 척도가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전체 성인용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의 상관은 .68로 유의미하였고,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전체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을 보면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부모에 의한 인정’, ‘경제력’ 및 ‘자녀에 대한 만족’ 요인 순으로 .4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비록 전체 성인용 자존감 척도와 전체 심리

적 안녕감척도와와의 상관이 .68로써 높게 나타났지만, 하위 구성개념들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신-타인에 대한 인정 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47이하의 상관값을 보였다. 즉, 이는 성인용 자존감 척도는 자아에 대한 다차원을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고,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자아의 심리적 차원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구분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각각의 하위 구성요인 또한 전체 심리적 안녕감과 같이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요인이 전반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사회봉사’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논 의

최근 심리학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 대한 주제로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심은 대체로 아동 또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아직까지 자존감연구의 시금석이 될 척도마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의 차원을 밝히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FGI를 통해, 148개의 자존감특성 문항을 도출하였고, 2단계로 이루어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1개 하위요인과 7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존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조사를 통해 도출된 11개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② 부모에 의한 인정, ③ 국가자부심, ④ 사회로부터 인정, ⑤ 배우자에 의한 인정, ⑥ 타인으로부터 인기, ⑦ 신체적 매력-외모, ⑧ 자녀에 대한 만족, ⑨ 자신의 성취, ⑩ 경제력, ⑪ 사회봉사.

2단계의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드러난 요인들은 비교적 해석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분석 과정이 너무 인위적이고 일반적인 2단계 요인분석과정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2차적 요인분석(secondary factor analysis)은 일차적인 요인분석 후 너무 많은 요인들이 추출되었거나 해석의 간명성(parsimony)을 위해 보다 축소된 수의 요인을 원할 때 일차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온 요인점수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이 이루어진다. 물론 직각회전의 결과는 요인점수간 상관이 영(zero)이기 때문에 일차적 요인분석은 사각회전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 요인분석 후 유사 요인끼리 재차 묶기 위해 2차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일차 요인분석에서 나온 요인을 다시 쪼개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2차적인 요인분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2단계 요인분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요인분석의 보편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이러한 분석 절차를 사용한 이유는 이 연구의 목적이 자존감의 요인 구조에 대한 탐색적인 확인에 있고 또 요인의 해석이 보다 명료해지는 장점이 있어 방법론적인 문제보다는 실용적인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실증적 결과인 위 11개 요인들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내용 중심의 질적 분석 결과 도출된 14개 요인들과 대부분 유사하다. 단지 14개 요인구조에서의

인품에 대한 인정과, 타인에 의한 인정 및 자신의 능력/성취 요인의 일부 문항이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요인으로 포함되었고, 대인관계에 의한 인정요인이 매력-외모와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요인으로 나뉘어 14개에서 11개 요인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11개 요인은 지금까지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 측정연구들에서 제안된 차원보다 다양하고, 차별적인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청년기를 거치면서 통합된 자아상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연령증가와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서 자아지각에 분화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자아의 다차원적 관점에서 자존감 측정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Harter(1985)의 아동의 자기 지각 검사와 Harter(1985)의 자기 지각 검사를 국내에 타당화한 이은혜 등(1992)의 자아지각 척도 등을 살펴보면, 그 구성요인으로서 '인지능력성', '신체적 능력', '사회적 수용', '외모',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로 구분된다. 또한 같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희화 등(1993)의 아동의 자존감 척도에서는 '인지적 능력자아', '또래 관련자아',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자아', '부정적 자아', '신체적 능력 자아'로 자아 존중감을 구분하였다.

이들 척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존감 척도를 비교해 보면, 먼저, Harter(1985)와 이은혜 등(1992)의 '전반적 자아가치' 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요인과 비교된다. 선행 연구자들의 전반적 자아 개념은 개인 자신이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만족하고, 가치 있어 하는 개념에 더해서 가족을 제외한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평가 또는 인정을 받고 있는지가 추가되어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수용'과 유사한 개념인 '또래 관련자아' 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인기' 요인으로, '외모' 요인은 '신체적 매력-외모' 요인으로, '인지능력성' 요인과 유사한 '인지적 능력 자아'는 '자신의 성취'요인과 비교될 수 있다. 그리고 김희화 등(1993)의 '가정적 자아'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한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자녀에 대한 만족'요인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적 자아가 부모, 배우자, 자녀와 같이 가정을 구성하는 대표적 구성원들로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아동 및 청소년의 자존감과 성인의 자존감의 두드러진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능력'요인, 바르고 모범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 요인과 '교사관련자아'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국가 자부심', '경제력', '사회로부터 인정' 및, '사회 봉사'요인은 성인기의 독특한 자존감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의 자존감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과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와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에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와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에서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자존감 척도와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와는 .39로 유의미하였고, Ryff(1989)의 심리적 안

녕감 척도와는 .68의 높은 상관값을 보였다. 자존감의 하위척도는 모든 하위 요인이 .40이하의 상관을 보여,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와는 변별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체 심리적 안녕감과 자존감과의 하위 구성요인과의 상관은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부모로부터의 인정, 배우자로부터의 인정, 자녀에 대한 만족, 경제력을 제외하고 전체요인에서 .40미만의 상관을 보여, Ryff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 구성개념과도 변별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본 연구의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와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 변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논의 할 사항은 본 연구의 자존감 척도는 심리적으로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개념인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 보다 심리적 안녕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본 한국판 성인용 자존감 척도는 Harter(1985)의 주장과 같이 자아의 다차원성 구조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단일차원의 총제적 자아를 가정한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와 다차원성을 가정한 본 연구의 자존감 척도가 다소 높지 않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자아 구조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다. 본 한국판 성인용 자존감 척도의 문항들을 내용에 따라 Sedikides와 Brewer(2001)의 개인적 자아(individual self),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및 집합적 자아(collective self)로 재분류하여 보면, 자신의 성취, 신체적 매력-외모, 경제력,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요인이 개인적 자아로 분류되고, 관계적 자아로는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부모로부터의 인정, 배우

자로부터의 인정, 자녀에 대한 만족, 타인으로부터 인기가 속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합적 자아로는 국가 자부심, 사회로부터의 인정, 사회봉사 요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은 개인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 모두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개인적, 관계적, 집합적 자아로 각각 분류될 수 있다.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는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와 같이 개인적 자아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하여, 한국판 성인용 자존감 척도는 부모에 의한 인정이나 배우자에 의한 인정과 같이 관계적 자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과 국가 자부심과 같은 집합적 자아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Markus와 Kitayama(1991)의 지적과 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독립성(independence)보다는 개인들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자존감에 있어서도 개인적 자아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관계적 자아와 집합적 자아의 평가차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직접적인 성인용 자존감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아니지만,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본 Kwan, Bond 및 Singelis(1997)의 연구에서는 미국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많이 받고, 홍콩의 대학생들은 자아존중감에 비하여 관계 조화성(relationship harmony)에 더 강한 영향을 받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경호(2001)의 연구도 삶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보다는 개인의 집합적 자아에 대한 평가인 집단자아존중감(collective self-esteem)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

고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집합주의 성향이 강한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적 자존감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성 또는 집합적 자존감이 삶의 질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r=.38$)에 비하여 한국판 성인용 자존감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r=.68$)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한국판 성인용 자존감 척도가 관계적 자아와 집합적 자아의 평가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성인용 자존감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높은 관련성은 두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방법효과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Campbell과 Fiske(1959)는 어떤 측정변수이건 측정방법의 특징이 점수에 반영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즉, 설문검사에서 성인용 자존감 척도와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6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는데 따른 설문검사형식의 효과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국판 성인용 자존감 척도와 관계적 자존감 또는 집합적 자존감 척도와의 관련성 및 방법론의 관점에서 성인용 자존감 척도의 방법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아지각 또는 자존감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Harter(1985)나 Rosenberg(1989)가 제시한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구성요소들을 직접 탐색, 도출하고, 이들 요인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별이 가능한 일개념성 요인들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 요인이나 기준을 도출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김희화 등; 1993, 이은혜 등; 1992)이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구성요인들을 도출하는데 그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한 질적 분석 외에 전국적인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요인분석(탐색적 및 확인적)을 통해 다차원적인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과 더불어서 서양문화권과는 다르게 개인적 자아구조 뿐만 아니라 관계적 및 집합적 자아구조가 있음을 밝힌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존감의 구성요인들이 Ryff(1989)가 제시한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삶의 질 혹은 안녕감의 구성개념에 대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한 점이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근영 (1996).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 개념연구 (I): 대학생의 우울 및 자기상과 관련하여. *인간발달연구*, 3(1), 1-14.
- 곽금주, 김근영 (1997). 자기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5-26.
- 강영자(2000).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한국생활과학회지*, 9(4), 421-428.
- 김기정, 이진만 (1995). 자아개념의 발달적 변화. 김기정, 자아의 발달(pp. 233-287). 서울: 문음사.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15(2), 19-40.
- 김문혜, 강문희 (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화, 김경연 (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성별차이와 발달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7(5), 1-17.
- 김희화, 김경연 (1993). 아동의 자아존중감: 구성영역과 발달. *아동학회지*, 14(1), 129-140.
- 박아청 (1983). *현대발달심리학*, 서울: 형설출판사.
- 송인섭 (1994). 자아개념의 다면·위계적 모형. *교육심리연구*, 8(2), 47-67.
- 양계민, 정진경 (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93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67-74.
- 이은혜, 신숙재, 송영주 (1992).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Yonsei Journal of Euthenics*, 6, 175-191.
- 이주리 (1994). 아동의 역량지각과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4), 193-208.
- 이진화, 전경숙 (1995).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5.
- 홍성열 (1998). 범죄예방을 위한 자아존중감의 탐색. *교정연구*, 8, 213-236.
- 홍기원, 김명소, 이종택, 한영석 (2004). 한국 성인 남녀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33-52.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 9(1), 7-26.
- Anderson, S. C., & Lauderdale, M. L. (1982). Characteristics of abusive parents: A look at self-esteem. *Child Abuse and Neglect*, 6, 285-293.
- Bandura, A. (1969). *Principles of 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aumeister, R. F., & Tice, D. M. (1985). Self esteem and responses to success and failure: Subsequent performance and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3, 450-467.
- Berk, L. E. (1991). *Child development*(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Brown, L., & Alexander, J. (1991). *Self-esteem index*. Austin, TX: PRO-ED.
- Campbell, D. T., & Fiske, D. W. (1959).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 81-10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Elliott, G. L. (1984). Dimensions of the self-concept a sources of further distinctions in the nature of self consciousness in the nature of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285-307.
- Finehout, P. J. (1983). *The effectiveness of "good student" skill training with underachieving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Park.
- Fleming, J. S., & Courtesy, B. E. (1984),

- “Hierarchical facet model for reviewed measurement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2), 404-421.
- Gondolf, E. W. (1985). *Men Who Better*. Holmes Beach, FL: Learning Publishing Co.
- Gordon, D. (1969). Self-conceptions methodologies,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orders*, 148, 328-364.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 system.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275-385). New York: Wiley.
- Harter, S. (1986). The determinant and media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in the children. In Eisenberg(Eds). *Contemporary topic of developmental Psychology*(pp.219-224). New York: Wiley.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 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Greca(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pp 292-325). Boston: Allyn and Bacon.
- Johnson, J. P. (1981). *A comparison of self-rated behaviors of students in different special education settings as measured by the Behavior Rating Profi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 Kirschner, D. (1992) Understanding adoptees who kill: Dissociation, particide and the psychodynamics of ado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6, 323-333.
- Knoff, H. M. (1983). Personality assessment in the schools: Issues and procedures for school psychologists. *School Psychology Review*, 12, 391-398.
- Long, E. E. (1990). *The anatomy of terrorism*, NY: Free Press.
- MacDonald, J. M. (1975). *Armed robbery offenders and their victim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n.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sh, C., & Gouvenet, P. J. (1989). Multidimensional self concepts and perceptions of control: Construct validation of response by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57-69.
- Marsh, H. W. (1993). Relations between global and specific domains of self: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importance, certainty, and ide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975-992.
- Martin, M. J. (1985). *An investiga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E.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sixth Ed.), New York: Harper & Row.
- Olivarez, J. R. (1985). *Behavior ratings and school performance of Black, Caucasian, and Hispanic elementary mal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Lansing.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mith, P. G. (1985). *Classroom behavior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 teacher, and parent perceptions of elementary SBH and SL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Sedikides, C., & Brewer, M. B. (2001).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In A. Sedikides, & M. B. Brewer (Ed.),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pp. 1-6),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Shavelson, R. J., Huber, J. J., & Stanton, G. C. (1976). Self 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 Judge, T. A., & Bono, J. E.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 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1270-1279.
- Tucker, M. D. (1985). *Academic achievement, physical fitness performance, and behavior ratings of sixth grade pupils with varying chronological ag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 Wiehe, V. R. (1991). *Perilous rivalry: When siblings become abusive*, Lexington. M. A.: Heath/Lexington Books.
-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Vol.2.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 차원고접수 : 2005. 10. 10
 수정원고접수 : 2006. 5. 15
 최종게재결정 : 2006. 6. 02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Self-esteem and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Scale among Korean Adults

Kyeong-Ho Cha Ki-Won Hong Myoung-So Kim Young-Seok Han

Hoseo University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structure of self-esteem among Korean adults and to develop a Korean Self-esteem Scale. 61 Korean adults participated in FGI (Focused Group Interview) in which they were asked to indicate situations enhancing their self-esteem as well as situations depressing their self-esteem. The content analysis of their responses yielded 14 categories with 148 characteristics of self-esteem. The list of 148 items, Rosenberg's self-esteem scale(1979), and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1989) were administered to a nationwide sample of 1503 Korean adults in order to assess their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6-point Likert scale. Responses from 877 participants were submitted to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70 items with low factor coefficient were deleted. The Korean Self-esteem Scale consisted of 78 items and 11 facto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responses from the 611 adults showed that the 11 factor structure derived from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appropriate. The Korean Self-esteem Scale showed relatively high correlations with Rosenberg's self-esteem scale and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respectively $r=.39$, $.68$. These results support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Korean Self-esteem Scale.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elf-esteem, self-esteem scale, psychological well-being

부 록

부록 1. 자존감 척도 7요인 기초 요인해

	요 인						
	1	2	3	4	5	6	7
고유치	14.61	13.47	2.48	1.96	1.52	1.28	1.21
고유치 차이	1.14	10.99	0.52	0.44	0.24	0.07	0.02
설명변량%	0.32	0.30	0.05	0.04	0.03	0.03	0.03
누적설명변량%	0.32	0.62	0.68	0.72	0.76	0.79	0.81

부록 2.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들 간의 상관행렬

	F1	F2	F3	F4	F5	F6	F7	F8	F9	F10	F11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F1)	-										
부모로 부터의 인정(F2)	0.65***	-									
국가자부심(F3)	0.49***	0.43***	-								
사회로부터 인정(F4)	0.00	0.07	0.03	-							
배우자로부터의인정(F5)	0.16***	0.17***	0.02	0.60***	-						
타인으로부터 인기(F6)	0.58***	0.39***	0.28***	-0.28***	-0.08	-					
신체적 매력-외모(F7)	0.65***	0.43***	0.33***	-0.20***	0.01	0.63***	-				
자녀에 대한 만족(F8)	0.57***	0.48***	0.41***	0.02	0.12**	0.37***	0.41***	-			
자신의 성취(F9)	0.57***	0.43***	0.29***	-0.26***	-0.05	0.49***	0.52***	0.43***	-		
경제력(F10)	0.25***	0.22***	0.02	0.31***	0.36***	0.08	0.13**	0.15***	0.15***	-	
사회봉사(F11)	0.50***	0.39***	0.35***	-0.32***	-0.13**	0.40***	0.43***	0.25***	0.50***	0.03	-

주. * $p < .05$, ** $p < .01$, *** $p < .001$

(23)	0.166	0.012	0.139	0.147	0.196	0.146	0.228	0.258	0.113	0.105	0.095	0.100	0.209
	0.173	0.166	0.196	0.275	0.180	0.223	0.272	0.122	0.245	0.985			
(24)	0.082	0.065	0.150	0.051	0.025	0.166	0.153	0.167	0.124	0.103	0.234	0.222	0.145
	0.141	0.084	0.116	0.198	0.106	0.194	0.243	0.082	0.103	0.199	1.028		
(25)	0.202	0.079	0.157	0.182	0.199	0.197	0.234	0.235	0.187	0.166	0.168	0.235	0.237
	0.174	0.138	0.188	0.195	0.187	0.334	0.241	0.087	0.135	0.206	0.401	0.974	
(26)	-0.119	-0.178	0.000	-0.106	-0.008	-0.032	-0.001	-0.057	-0.010	-0.005	0.018	0.066	0.049
	-0.008	0.007	0.003	0.080	-0.037	-0.014	0.119	-0.221	0.000	0.099	0.087	0.144	1.184
(27)	-0.233	-0.196	-0.057	-0.125	-0.027	-0.092	-0.067	-0.099	-0.048	0.027	-0.081	0.043	0.019
	-0.013	0.048	0.057	0.035	-0.074	0.005	0.052	-0.200	-0.068	0.065	0.083	0.121	0.666
	1.411												
(28)	-0.083	-0.035	0.068	-0.058	0.056	-0.026	0.027	-0.007	0.019	0.025	0.049	0.135	0.099
	-0.008	0.092	0.020	0.077	-0.050	0.012	0.058	-0.231	0.008	0.097	0.073	0.118	0.680
	-0.668	1.320											
(29)	-0.112	-0.177	0.004	-0.053	0.046	0.027	0.041	0.003	0.051	0.010	0.014	0.040	0.051
	0.021	0.074	0.037	0.043	-0.005	-0.045	0.018	-0.231	-0.024	0.028	0.064	0.117	0.506
	0.533	0.492	1.100										
(30)	-0.048	-0.085	0.001	-0.023	-0.000	0.006	0.102	-0.004	0.081	-0.005	0.057	0.068	0.094
	0.077	0.155	0.055	0.172	0.084	0.008	0.081	-0.252	-0.021	0.090	0.160	0.149	0.472
	-0.468	0.409	0.409	1.062									
(31)	-0.080	-0.055	0.017	0.021	-0.003	-0.010	0.047	-0.027	0.051	0.004	0.001	0.081	0.101
	0.005	0.067	0.062	0.082	0.004	0.038	0.048	-0.249	-0.113	0.063	0.135	0.170	0.396
	0.426	0.393	0.409	0.451	1.011								
(32)	-0.030	-0.061	0.092	0.048	0.063	0.078	0.106	0.024	0.094	0.065	0.103	0.141	0.139
	0.044	0.119	0.122	0.086	0.003	0.059	0.044	-0.271	0.000	0.074	0.114	0.133	0.359
	0.347	0.282	0.337	0.348	0.357	0.980							
(33)	-0.111	-0.059	-0.038	-0.043	-0.052	-0.054	-0.012	-0.060	-0.055	-0.016	-0.008	0.053	0.016
	-0.038	-0.031	-0.000	0.014	-0.050	-0.045	0.022	-0.153	0.048	0.054	0.175	0.060	0.281
	0.292	0.233	0.245	0.267	0.265	0.177	0.962						
(34)	-0.091	-0.031	0.033	-0.102	-0.012	0.013	0.019	-0.030	0.034	-0.008	0.046	0.051	0.052
	0.019	0.098	0.010	0.028	-0.043	0.020	-0.042	-0.267	-0.167	0.028	0.064	0.061	0.335
	0.397	0.350	0.321	0.329	0.357	0.421	0.167	1.147					
(35)	0.087	0.079	0.126	0.049	0.103	0.096	0.149	0.062	0.122	0.097	0.118	0.133	0.144
	0.161	0.184	0.132	0.218	0.049	0.067	-0.007	-0.186	-0.108	-0.004	0.127	0.127	0.277
	0.251	0.281	0.242	0.255	0.319	0.384	0.100	0.274	1.087				
(36)	0.001	0.036	0.080	0.003	0.149	0.016	0.137	0.060	0.082	0.050	0.073	0.161	0.118
	0.069	0.092	0.089	0.025	0.059	0.042	0.041	-0.168	-0.062	0.005	0.082	0.099	0.297
	0.416	0.326	0.333	0.313	0.348	0.412	0.196	0.337	0.495	1.015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	0.060	0.001	0.083	0.052	0.098	0.058	0.142	0.040	0.083	0.105	0.127	0.152	0.168
	0.122	0.134	0.091	0.109	0.037	0.134	0.079	-0.194	-0.044	0.129	0.136	0.168	0.254
	0.351	0.285	0.218	0.309	0.302	0.499	0.189	0.346	0.511	0.479	1.131		
(38)	-0.088	-0.106	-0.010	-0.101	0.047	0.005	0.093	0.044	0.019	0.062	0.021	0.049	0.053
	0.065	0.124	0.162	0.159	-0.068	0.002	0.039	-0.275	-0.052	0.047	0.096	0.093	0.303
	0.421	0.372	0.387	0.336	0.388	0.381	0.135	0.362	0.452	0.428	0.439	1.020	
(39)	-0.027	-0.063	0.050	0.001	0.096	0.046	0.102	-0.023	0.116	0.035	0.066	0.096	0.067
	0.054	0.108	0.072	0.095	0.001	0.006	0.020	-0.224	-0.099	0.065	0.102	0.120	0.329
	0.349	0.269	0.283	0.294	0.347	0.414	0.083	0.336	0.545	0.458	0.443	0.445	1.133
(40)	0.053	-0.041	0.056	0.002	0.050	0.034	0.112	0.095	0.097	0.040	0.105	0.088	0.109
	0.140	0.083	0.109	0.173	0.033	0.086	0.057	-0.214	-0.108	0.107	0.153	0.123	0.317
	0.344	0.309	0.320	0.317	0.377	0.357	0.174	0.268	0.531	0.437	0.443	0.495	0.524
	1.071												
(41)	0.363	0.288	0.226	0.310	0.237	0.165	0.273	0.351	0.229	0.177	0.228	0.144	0.203
	0.195	0.156	0.208	0.152	0.237	0.315	0.139	0.187	0.124	0.101	0.096	0.207	-0.359
	-0.336	-0.224	-0.197	-0.104	-0.144	-0.141	-0.134	-0.166	-0.071	-0.100	-0.085	-0.186	-0.165
	-0.091	1.339											
(42)	0.229	0.284	0.111	0.360	0.165	0.157	0.231	0.268	0.183	0.173	0.131	0.173	0.083
	0.187	0.098	0.160	0.146	0.164	0.246	0.104	0.228	0.025	0.018	0.066	0.148	-0.212
	-0.274	-0.202	-0.171	-0.077	-0.030	-0.096	-0.138	-0.181	-0.075	-0.094	-0.056	-0.226	-0.087
	-0.117	0.713	1.431										
(43)	0.350	0.243	0.201	0.419	0.190	0.246	0.305	0.335	0.286	0.247	0.295	0.247	0.254
	0.209	0.169	0.267	0.198	0.203	0.237	0.130	0.106	0.168	0.150	0.147	0.228	-0.215
	-0.126	-0.200	-0.106	-0.047	-0.061	-0.002	-0.068	-0.039	0.004	-0.010	0.073	-0.045	-0.044
	-0.015	0.614	0.502	1.110									
(44)	0.210	0.320	0.150	0.205	0.233	0.125	0.171	0.243	0.146	0.106	0.080	0.142	0.106
	0.151	0.071	0.169	0.049	0.151	0.158	-0.005	0.249	0.111	0.005	0.051	0.081	-0.260
	-0.234	-0.186	-0.258	-0.177	-0.182	-0.086	-0.082	-0.148	-0.019	-0.095	-0.004	-0.107	-0.128
	-0.131	0.408	0.389	0.318	1.111								
(45)	0.380	0.331	0.223	0.293	0.319	0.183	0.236	0.287	0.221	0.161	0.187	0.185	0.182
	0.272	0.140	0.214	0.172	0.246	0.314	0.110	0.252	0.076	0.128	0.044	0.153	-0.195
	-0.273	-0.143	-0.159	-0.081	-0.035	-0.063	-0.172	-0.084	0.017	0.006	0.018	-0.120	-0.041
	0.019	0.499	0.411	0.308	0.358	1.055							
(46)	0.470	0.273	0.243	0.221	0.313	0.245	0.332	0.443	0.263	0.224	0.276	0.193	0.264
	0.172	0.151	0.229	0.085	0.232	0.337	0.168	0.123	0.127	0.153	0.056	0.168	-0.130
	-0.178	-0.061	-0.054	-0.024	-0.030	0.011	-0.185	-0.017	0.048	0.095	0.084	0.013	-0.016
	0.053	0.414	0.343	0.330	0.251	0.339	1.301						

(47)	0.324	0.369	0.233	0.254	0.329	0.195	0.202	0.346	0.246	0.111	0.166	0.166	0.104
	0.230	0.103	0.173	0.136	0.269	0.156	0.032	0.225	0.125	0.020	0.004	0.055	-0.215
	-0.289	-0.123	-0.139	-0.093	-0.179	-0.104	-0.143	-0.128	0.027	-0.055	-0.030	-0.123	-0.085
	0.001	0.317	0.274	0.305	0.364	0.503	0.300	1.127					
(48)	0.312	0.343	0.292	0.242	0.242	0.171	0.207	0.354	0.287	0.163	0.186	0.116	0.165
	0.273	0.135	0.178	0.191	0.268	0.241	0.149	0.224	0.087	0.022	0.105	0.092	-0.213
	-0.227	-0.147	-0.163	-0.014	-0.046	-0.056	-0.050	-0.124	-0.017	-0.050	0.046	-0.113	-0.053
	-0.003	0.356	0.313	0.281	0.216	0.406	0.270	0.565	1.109				
(49)	0.224	0.210	0.206	0.260	0.188	0.195	0.232	0.302	0.223	0.200	0.204	0.188	0.184
	0.269	0.158	0.275	0.263	0.229	0.205	0.312	0.185	0.143	0.132	0.132	0.183	0.017
	-0.004	0.034	0.034	0.158	0.078	0.085	0.027	0.023	0.155	0.121	0.111	0.123	0.088
	0.143	0.284	0.211	0.316	0.133	0.261	0.258	0.268	0.371	1.000			
(50)	0.386	0.252	0.175	0.191	0.320	0.163	0.253	0.331	0.184	0.112	0.151	0.168	0.147
	0.158	0.052	0.159	0.096	0.243	0.224	0.101	0.261	0.167	0.072	0.039	0.128	-0.209
	-0.305	-0.131	-0.191	-0.132	-0.148	-0.049	-0.085	-0.206	-0.013	-0.044	-0.024	-0.126	-0.094
	-0.040	0.393	0.385	0.212	0.290	0.371	0.335	0.395	0.375	0.146	1.104		
(51)	0.205	0.265	0.155	0.284	0.267	0.112	0.240	0.302	0.198	0.148	0.152	0.118	0.109
	0.165	0.105	0.099	0.113	0.121	0.157	0.071	0.162	0.054	0.087	0.014	0.052	-0.196
	-0.285	-0.153	-0.179	-0.144	-0.075	-0.063	-0.153	-0.124	0.056	-0.042	0.024	-0.115	-0.073
	0.025	0.359	0.383	0.268	0.354	0.426	0.269	0.489	0.324	0.157	0.438	1.088	
(52)	0.225	0.218	0.191	0.268	0.177	0.190	0.143	0.234	0.177	0.110	0.187	0.227	0.158
	0.189	0.177	0.118	0.178	0.146	0.085	0.134	0.102	0.031	0.058	0.021	0.059	-0.049
	-0.049	0.014	-0.017	-0.006	-0.008	-0.006	-0.044	0.038	0.061	0.113	0.049	0.047	0.019
	0.060	0.218	0.200	0.236	0.079	0.235	0.231	0.280	0.316	0.505	0.158	0.171	1.229
(53)	0.259	0.267	0.251	0.236	0.189	0.167	0.161	0.250	0.247	0.211	0.193	0.217	0.206
	0.190	0.159	0.157	0.177	0.170	0.175	0.129	0.062	0.091	0.139	0.134	0.157	-0.026
	-0.040	0.061	-0.062	0.062	0.023	0.056	-0.008	0.019	0.083	0.040	0.091	-0.012	0.057
	0.099	0.249	0.215	0.246	0.150	0.265	0.213	0.229	0.306	0.241	0.158	0.219	0.266
	0.729												
(54)	0.396	0.255	0.190	0.353	0.258	0.201	0.353	0.425	0.155	0.135	0.157	0.193	0.200
	0.212	0.154	0.240	0.260	0.214	0.300	0.166	0.182	0.175	0.188	0.140	0.337	-0.128
	-0.269	-0.165	-0.120	-0.017	-0.056	-0.080	-0.069	-0.273	0.007	-0.080	-0.081	-0.077	-0.055
	0.004	0.425	0.404	0.314	0.269	0.360	0.267	0.244	0.290	0.235	0.356	0.282	0.202
	0.226	1.198											
(55)	0.242	0.209	0.187	0.165	0.175	0.202	0.220	0.226	0.219	0.153	0.219	0.178	0.186
	0.224	0.170	0.177	0.203	0.173	0.245	0.125	0.099	0.101	0.084	0.139	0.160	0.055
	-0.022	0.054	0.014	0.029	0.076	0.066	-0.020	0.031	0.183	0.129	0.083	0.091	0.122
	0.086	0.176	0.149	0.125	0.095	0.190	0.220	0.124	0.175	0.143	0.159	0.141	0.160
	0.201	0.138	0.545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56)	0.190	0.185	0.168	0.166	0.143	0.161	0.150	0.224	0.203	0.122	0.106	0.153	0.200
	0.174	0.180	0.154	0.204	0.136	0.205	0.114	0.110	0.065	0.125	0.103	0.173	-0.012
	-0.016	0.003	0.023	0.039	0.061	0.079	-0.016	0.019	0.076	0.087	0.098	0.080	0.054
	0.079	0.085	0.065	0.140	0.077	0.160	0.149	0.124	0.137	0.159	0.089	0.078	0.123
	0.121	0.183	0.216	0.495									
(57)	0.178	0.103	0.120	0.171	0.146	0.166	0.154	0.180	0.126	0.102	0.156	0.135	0.149
	0.163	0.142	0.163	0.142	0.175	0.141	0.122	0.040	0.084	0.081	0.108	0.106	0.006
	0.020	0.058	-0.019	0.031	0.057	0.071	0.041	0.011	0.064	0.060	0.110	0.021	0.022
	0.053	0.159	0.172	0.145	0.139	0.123	0.158	0.101	0.100	0.139	0.089	0.105	0.140
	0.149	0.103	0.186	0.127	0.604								
(58)	0.204	0.060	0.134	0.094	0.134	0.129	0.155	0.227	0.134	0.090	0.112	0.145	0.125
	0.177	0.122	0.108	0.170	0.086	0.161	0.164	0.092	0.174	0.170	0.172	0.229	0.054
	-0.026	0.052	0.077	0.079	0.106	0.025	0.066	0.024	0.047	-0.000	0.057	0.051	0.045
	0.039	0.145	0.127	0.140	0.020	0.093	0.168	0.047	0.103	0.120	0.076	0.088	0.057
	0.141	0.173	0.211	0.174	0.176	0.659							
(59)	0.219	0.146	0.181	0.189	0.193	0.185	0.208	0.287	0.168	0.111	0.216	0.146	0.170
	0.197	0.139	0.132	0.228	0.194	0.216	0.179	0.142	0.169	0.076	0.113	0.190	-0.039
	-0.117	0.012	0.024	0.037	-0.024	0.028	-0.027	-0.054	0.036	0.024	0.095	0.017	0.025
	0.060	0.240	0.202	0.165	0.140	0.218	0.212	0.211	0.230	0.211	0.203	0.141	0.129
	0.175	0.171	0.271	0.202	0.214	0.216	0.790						
(60)	0.107	0.088	0.141	0.156	0.156	0.158	0.107	0.140	0.099	0.059	0.094	0.114	0.161
	0.080	0.154	0.120	0.137	0.093	0.093	0.070	0.102	0.096	0.074	0.070	0.078	-0.006
	-0.067	-0.008	-0.010	-0.020	-0.002	0.038	-0.030	-0.049	0.068	-0.028	0.017	-0.008	0.039
	-0.040	0.147	0.125	0.099	0.125	0.131	0.077	0.150	0.131	0.076	0.107	0.140	0.077
	0.090	0.137	0.145	0.111	0.210	0.136	0.195	0.557					
(61)	0.108	0.105	0.092	0.069	0.064	0.100	0.079	0.115	0.105	0.037	0.069	0.072	0.102
	0.101	0.115	0.114	0.070	0.104	0.098	0.060	0.106	0.064	0.063	0.072	0.092	-0.022
	-0.059	-0.064	-0.043	-0.049	-0.004	0.032	-0.017	0.013	0.033	0.009	0.018	-0.030	0.022
	-0.045	0.040	0.049	0.090	0.121	0.076	0.034	0.036	0.053	0.030	0.045	0.049	0.032
	0.047	0.099	0.113	0.174	0.166	0.120	0.092	0.120	0.429				
(62)	0.114	0.086	0.071	0.087	0.089	0.062	0.073	0.106	0.063	0.049	0.051	0.039	0.098
	0.055	0.071	0.107	0.139	0.093	0.101	0.058	0.075	0.087	0.109	0.007	0.049	-0.008
	-0.074	-0.015	-0.010	-0.031	0.033	0.018	-0.012	-0.044	0.018	-0.033	-0.008	-0.014	0.018
	-0.011	0.096	0.101	0.048	0.035	0.073	0.053	0.045	0.091	0.053	0.074	0.037	0.048
	0.094	0.151	0.091	0.069	0.097	0.075	0.147	0.111	0.150	0.420			

(63)	0.335	0.296	0.205	0.156	0.328	0.210	0.282	0.369	0.288	0.201	0.178	0.183	0.184
	0.289	0.178	0.236	0.174	0.305	0.300	0.116	0.196	0.107	0.141	0.067	0.122	-0.202
	-0.283	-0.090	-0.097	-0.012	-0.035	-0.024	-0.097	-0.077	0.078	-0.022	0.035	-0.058	-0.081
	0.006	0.303	0.265	0.202	0.305	0.287	0.339	0.291	0.273	0.229	0.301	0.215	0.202
	0.169	0.325	0.173	0.120	0.167	0.137	0.235	0.085	0.085	0.084	1.208		
(64)	0.350	0.299	0.259	0.253	0.289	0.246	0.237	0.344	0.220	0.134	0.185	0.185	0.171
	0.276	0.123	0.208	0.226	0.282	0.241	0.114	0.274	0.109	0.181	0.124	0.062	-0.220
	-0.355	-0.219	-0.161	-0.159	-0.087	-0.080	-0.102	-0.189	0.042	-0.130	-0.033	-0.138	-0.061
	-0.032	0.218	0.221	0.223	0.275	0.356	0.245	0.429	0.353	0.188	0.280	0.326	0.168
	0.226	0.299	0.175	0.150	0.173	0.121	0.223	0.182	0.135	0.168	0.526	1.066	
(65)	0.380	0.347	0.274	0.217	0.252	0.214	0.295	0.394	0.276	0.143	0.163	0.261	0.201
	0.266	0.228	0.199	0.222	0.308	0.274	0.092	0.239	0.124	0.163	0.104	0.083	-0.187
	-0.216	-0.021	-0.133	-0.062	-0.066	-0.097	-0.115	-0.131	0.096	-0.013	0.023	-0.044	-0.032
	0.018	0.298	0.213	0.216	0.277	0.365	0.299	0.313	0.367	0.169	0.305	0.234	0.229
	0.253	0.297	0.217	0.193	0.152	0.136	0.292	0.117	0.109	0.136	0.547	0.562	1.181
(66)	0.262	0.322	0.159	0.169	0.175	0.132	0.119	0.296	0.139	0.008	0.064	0.053	0.080
	0.142	0.038	0.089	0.123	0.234	0.169	0.030	0.278	0.111	0.196	0.039	-0.035	-0.390
	-0.506	-0.246	-0.313	-0.141	-0.158	-0.158	-0.115	-0.221	-0.075	-0.148	-0.126	-0.240	-0.222
	-0.137	0.278	0.263	0.176	0.379	0.324	0.308	0.307	0.316	0.031	0.348	0.230	0.038
	0.143	0.189	0.103	0.052	0.120	0.061	0.204	0.097	0.051	0.094	0.457	0.556	0.493
	1.454												
(67)	0.328	0.262	0.203	0.224	0.349	0.262	0.291	0.374	0.260	0.194	0.215	0.217	0.231
	0.204	0.222	0.210	0.138	0.314	0.324	0.132	0.143	0.125	0.136	0.074	0.165	-0.028
	-0.144	0.030	-0.012	0.026	-0.012	0.050	-0.018	-0.032	0.086	0.140	0.129	0.018	0.084
	0.057	0.260	0.242	0.207	0.233	0.248	0.307	0.218	0.220	0.229	0.252	0.182	0.234
	0.189	0.288	0.212	0.201	0.171	0.132	0.217	0.145	0.110	0.082	0.301	0.246	0.267
	0.174	0.922											
(68)	0.161	0.128	0.074	-0.013	0.183	0.035	0.111	0.197	0.059	0.065	0.190	0.029	0.104
	0.132	0.068	0.154	0.135	0.132	0.189	-0.024	-0.056	-0.016	-0.000	0.007	0.030	0.182
	0.099	0.174	0.072	0.172	0.192	0.133	0.087	0.206	0.212	0.198	0.209	0.185	0.215
	0.235	0.025	0.048	-0.013	-0.003	0.094	0.188	0.086	0.178	0.108	0.068	-0.017	0.031
	0.012	0.076	0.115	0.109	0.029	0.008	0.054	0.023	0.043	0.096	0.043	0.071	0.199
	-0.001	0.221	1.266										
(69)	0.159	0.083	0.039	0.014	0.148	0.081	0.075	0.112	0.059	0.077	0.190	0.066	0.088
	0.134	0.037	0.211	0.062	0.079	0.151	-0.076	-0.000	-0.000	0.044	-0.031	0.083	0.114
	0.108	0.187	0.085	0.131	0.182	0.197	0.001	0.192	0.181	0.173	0.236	0.158	0.205
	0.142	0.031	0.048	0.040	0.015	0.120	0.102	0.051	0.095	0.067	0.067	-0.023	0.010
	-0.004	0.021	0.097	0.080	0.069	0.064	0.016	0.052	0.060	0.057	0.147	0.070	0.143
	-0.010	0.170	0.664	1.161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70)	0.381	0.310	0.213	0.263	0.308	0.177	0.248	0.298	0.255	0.279	0.251	0.259	0.184
	0.217	0.142	0.230	0.195	0.233	0.238	0.040	0.184	0.157	0.123	0.074	0.159	-0.166
	-0.190	-0.034	-0.122	-0.090	-0.094	0.024	-0.076	-0.131	0.109	-0.035	0.093	-0.084	0.011
	-0.024	0.251	0.181	0.265	0.261	0.276	0.260	0.323	0.287	0.222	0.297	0.190	0.127
	0.244	0.217	0.156	0.177	0.168	0.115	0.174	0.115	0.134	0.091	0.227	0.273	0.305
	0.276	0.291	0.283	0.306	1.096								
(71)	0.106	0.026	0.001	-0.007	0.106	0.022	0.028	0.083	-0.022	0.094	0.083	0.029	0.044
	0.055	-0.027	0.119	0.033	0.053	0.042	-0.048	-0.114	0.007	-0.018	0.018	0.007	0.075
	0.110	0.113	0.092	0.138	0.096	0.137	0.026	0.228	0.171	0.143	0.244	0.203	0.207
	0.155	-0.007	0.040	0.048	0.033	0.093	0.113	0.076	0.124	0.052	-0.011	-0.036	0.059
	0.077	-0.108	0.045	0.043	-0.014	0.009	0.059	-0.062	0.013	0.015	0.021	0.018	0.098
	0.001	0.121	0.461	0.410	0.292	1.042							
(72)	0.069	-0.001	0.012	-0.004	0.168	0.003	0.055	0.134	0.073	0.048	0.134	0.084	0.064
	0.100	0.058	0.153	0.018	0.082	0.127	-0.063	-0.153	-0.062	0.029	-0.003	0.077	0.245
	0.225	0.349	0.203	0.211	0.244	0.266	0.141	0.325	0.291	0.334	0.335	0.300	0.218
	0.185	-0.010	-0.057	-0.032	-0.052	0.040	-0.015	0.044	0.075	0.095	0.011	0.017	0.034
	0.021	-0.068	0.077	0.039	0.038	0.043	-0.005	-0.044	0.014	0.015	0.061	-0.065	0.036
	-0.106	0.113	0.509	0.467	0.327	0.409	1.289						
(73)	0.059	0.017	0.075	-0.082	0.143	-0.007	0.165	0.102	0.105	-0.001	0.068	0.033	0.127
	0.065	0.093	0.105	0.107	0.126	0.098	-0.029	-0.138	-0.064	0.126	0.073	0.044	0.311
	0.238	0.351	0.228	0.347	0.276	0.257	0.215	0.260	0.315	0.313	0.280	0.261	0.324
	0.242	-0.139	-0.152	-0.108	-0.052	-0.052	0.093	-0.014	-0.001	0.034	0.011	-0.102	-0.061
	0.025	-0.040	0.082	0.090	-0.007	0.031	-0.046	-0.020	0.053	0.020	0.072	-0.018	0.063
	-0.015	0.136	0.467	0.360	0.192	0.255	0.432	1.113					
(74)	-0.006	-0.030	0.044	-0.012	0.090	-0.034	0.036	0.078	0.008	-0.002	0.070	0.054	0.037
	0.027	0.007	0.049	-0.010	0.041	0.026	0.001	-0.131	-0.001	0.027	-0.022	0.033	0.242
	0.255	0.281	0.173	0.309	0.220	0.220	0.097	0.202	0.164	0.228	0.200	0.155	0.191
	0.191	-0.063	-0.100	-0.067	-0.063	0.047	0.041	0.044	0.007	0.071	-0.018	-0.049	0.007
	-0.055	0.006	-0.009	0.052	0.018	0.014	-0.032	-0.059	0.034	-0.031	-0.026	-0.110	-0.058
	-0.100	0.084	0.386	0.361	0.226	0.210	0.416	0.410	0.985				
(75)	0.398	0.329	0.161	0.182	0.216	0.182	0.254	0.311	0.218	0.163	0.242	0.137	0.209
	0.286	0.093	0.232	0.150	0.246	0.311	0.130	0.373	0.194	0.092	0.067	0.104	-0.342
	-0.384	-0.293	-0.283	-0.258	-0.267	-0.214	-0.197	-0.263	-0.099	-0.109	-0.069	-0.143	-0.239
	-0.139	0.291	0.175	0.250	0.318	0.334	0.287	0.198	0.275	0.115	0.370	0.205	0.191
	0.122	0.332	0.129	0.089	0.061	0.013	0.102	0.042	0.102	0.099	0.507	0.376	0.408
	0.374	0.227	0.024	0.059	0.245	-0.027	-0.054	-0.066	-0.155	1.441			

(76)	0.359	0.374	0.229	0.196	0.253	0.195	0.289	0.344	0.227	0.219	0.259	0.166	0.177
	0.316	0.173	0.185	0.182	0.255	0.314	0.171	0.317	0.193	0.117	0.066	0.128	-0.231
	-0.277	-0.136	-0.198	-0.166	-0.156	-0.163	-0.151	-0.205	-0.032	-0.058	-0.080	-0.058	-0.122
	-0.052	0.249	0.231	0.249	0.305	0.302	0.353	0.243	0.320	0.210	0.333	0.206	0.190
	0.199	0.312	0.160	0.128	0.071	0.090	0.177	0.037	0.091	0.094	0.458	0.325	0.460
	0.267	0.237	0.117	0.148	0.260	-0.014	-0.038	0.074	-0.096	0.766	1.126		
(77)	0.383	0.318	0.158	0.251	0.275	0.259	0.204	0.291	0.221	0.146	0.232	0.173	0.160
	0.248	0.120	0.175	0.162	0.278	0.290	0.168	0.346	0.185	0.078	0.060	0.115	-0.264
	-0.376	-0.246	-0.244	-0.223	-0.201	-0.141	-0.122	-0.195	-0.155	-0.063	-0.119	-0.170	-0.208
	-0.125	0.366	0.251	0.297	0.303	0.308	0.377	0.331	0.264	0.218	0.420	0.229	0.316
	0.147	0.327	0.147	0.068	0.118	0.011	0.164	0.066	0.066	0.072	0.447	0.379	0.359
	0.373	0.216	0.046	0.033	0.224	-0.138	-0.057	0.018	-0.061	0.773	0.666	1.400	
(78)	0.216	0.155	0.154	0.264	0.093	0.208	0.241	0.256	0.200	0.209	0.146	0.152	0.224
	0.185	0.215	0.220	0.305	0.211	0.299	0.190	0.212	0.211	0.242	0.192	0.208	-0.054
	-0.071	-0.043	-0.120	-0.061	-0.010	-0.054	-0.076	-0.126	0.021	-0.025	0.056	0.038	-0.080
	0.038	0.093	0.090	0.245	0.136	0.159	0.155	0.068	0.159	0.245	0.138	0.052	0.186
	0.146	0.261	0.133	0.151	0.102	0.077	0.150	0.090	0.102	0.111	0.242	0.241	0.298
	0.151	0.153	0.034	0.018	0.125	-0.062	-0.061	-0.021	-0.110	0.443	0.437	0.354	0.918

K C I